99학년도 수능 언어영역 해설

<듣기>

1. 연사는 연주회가 지휘자, 연주자, 청중으로 이루어진다고 전제하고, 이 세 요소가 긴밀히 협력하고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 때 감동적인 연주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그림에서 세 요소간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찾으면 된다. 답③

2. 이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자가 평소와 다른 태도를 보이자 여자는 남자에게 평소와 '틀리다'라고 말하고, 남자는 여자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틀리다'라는 어휘로 인하여 언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여자는 '틀리다'가 아니라 평소와 태도가 '다르다'라고 말해야 적절하다. 즉 '틀리다'는 '계산이나 일 따위가 어긋나거나 맞지 않음'을 일컫는 말이며, '다르다'는 '같다'의 반대되는 말로, '같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답①

3. 이 대담의 목적은 겨울철의 체력관리의 방법을 전문가로부터 듣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자는 전문가인 초대손님에게 겨울철에 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운동을 일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초대손님은 겨울철에 운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것에 비유하여 말하는가 하면, 마라톤 선수와 체조선수의 예를 들면서 겨울철의 훈련 방식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초대손님은 대담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회자의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셈이다.
답④

4. 시민인 드레퓌스의 무죄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피고로 선 에밀졸라의 진술 내용이다. 에밀졸라는 자신의 생명과 명예, 그리고 역작과 역작으로 인해 얻은 권위를 걸고, 드레퓌스의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상하 양원, 정부 당국, 신문 및 여론이 자신을 반대하고 있다는 진술로 볼 때, 배심원들이 여론을 존중하여 판단해 달라는 내용은 이 진술의 사실과 어긋나는 내용이다. 답④

5. 남자 토론자가 만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만화를 못 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자 토론자는 만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만화를 바르게 선택하거나, 바르게 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 토론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글을 쓰고자 한다면 만화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활용 방안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 답④

6. 남자 토론자는 상대편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더욱이 자신의 주장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공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남자 토론자를 마이동풍(馬耳東風), 안하무인(眼下無人), 막무가내(莫無可奈)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런 토론자는 함구무언(緘口無言)하는 것이 낫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을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부화뇌동(附和雷同 ; 일정한 견식이 없이 남의 말에 찬성해 같이 행동함)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다. 답⑤

<쓰기>

7. 제시된 그림에는, 사막을 배경으로 낙타 몇 마리와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 이를 바탕

으로 연상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다음 조건인 '인생과 여로'라는 제목에 알맞은 내용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상한 내용 중에서 '인생'에 초점이 맞추어진 내용만을 골라야 한다. 그러나 ③은 사막의 의미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과 여로'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에는 적절하지가 않다. 답③

8. 제시된 글감 중 '다양한 관점'에 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대상을 단일한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⑤는 주제로 설정하기 어렵다. 답⑤

9. 먼저 제시된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자료는 '여가 활용 실태'를 그래프를 통하여 보여 주고 있는데, 스포츠나 영상 매체, 오락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반면, 독서에는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 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기 때문에 독서의 양이 풍부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독서 취향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알 수 없다. 따라서 ②는 자료를 잘못 분석함으로써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답②

10. 추상적인 문장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찾는 문제이다. 이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물음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답지 중 ②의 중심 문장은 '누구나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이나, 바꾸어 쓰는 과정에서 역접 관계의 부사를 사용하여 '말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의미가 달라져 버렸다. 나머지 답지들은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함으로써 의미가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드러나고 있다. 답②

11. 한글 맞춤법 제5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사의 끝 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흥건이'는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기법으로 '흥건히'로 고쳐써야 한다. 답①

12. 지난 날 자신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던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는 편지글이다. 학생의 감사의 마음이나 선생님의 너그러운 마음과 관련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을 찾으면 된다. 선생님의 너그러운 말씀 한 마디에(㉢) 감사의 눈물이 떨어졌다(㉣)는 내용 사이에 선생님의 직위를 떠올리는 것(㉡)은 앞 뒤 문맥으로 볼 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④

<현대시>

13. (가)시는 떠나갈 님에 대한 아쉬움을 노래하고 있으며, (나)시는 암담한 일제 치하에서 독립에 대한 염원과 생명력의 희구를 노래하고 있다. 이 두 시의 공통점은 시적 화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다. ①은 두 시 모두 주관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보고 있다. ②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의 경우, (가)시는 미래 시제, (나)시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맞지 않다. ⑤는 (가),(나) 모두 설득적 어조를 구사하고 있지는 않다. 답④

14. (가)에서의 꽃은 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또는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의 승화를 상징한다. 그리고 (나)에서는 가뭄과 추위 속에서도 피는 존재로서, 극한 상황을 초극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함축된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답⑤

15. 원작과 개작을 비교해 보면 시적 대상, 화자, 그리고 의미상의 변화는 없다. 그러나 개작에서 글자 수를 7·5조로 조절함으로써 원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3음보의 운율을 느낄 수 있다. 답⑤

16. (나)시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제시된 예문 중 암

담한 현실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희망을 담고 있는 시행으로 구분하면 된다. ①은 암담한 현실, 즉 일제 치하의 극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고, ②~⑤는 이러한 극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담긴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답①

17. (가)시의 시적 화자의 태도는 소극적이고 체념인 데 반해, (나)시의 시적 화자는 적극적이고 의지가 확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두 시적 화자가 (가)의 시적 화자의 태도를 놓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①,②,③,④는 두 시적 화자의 태도로 볼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대화이다. 그러나 (나)의 시적 화자가 적극적이고 확고한 의지를 지닌 점을 감안할 때, '감정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⑤의 내용은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답⑤

<예술>

18.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동양화의 특징은, 산점 투시법(散點透視法)을 사용하고, 이러한 산점 투시법(散點 透視法)을 사용함으로써 화가 자신이 가장 절실하다고 느낀 부분을 적절하게 안배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생략함으로써 구도의 융통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시에 출현할 수 없는 사물들을 한 폭의 화면에 담음으로써 관찰한 풍경에 대한 인상을 종합하여 한 화면에 그려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대상의 객관적 요소를 사실적으로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은 동양화의 특징이 아니라 서양화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이다. 답③

19. 이 글은 동양화의 장점을 드러내기 위한 대조의 대상으로 서양화의 특징을 언급함으로써 서양화의 단점만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을 읽은 독자가 동양화의 기법은 단점을 지니지 않은 완벽한 기법일까? 또는 서양화의 기법의 장점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양화가 동양화의 기법을 받아들였다는 내용은 지문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②와 같은 의문은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잘못된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답②

20. 첫째 문단은 서양화는 일정한 거리와 각도에서 그 시야 안의 사물만을 관찰하고 묘사한다는 내용이다. 사진도 한 곳에서 단면만을 찍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는 풍경은 우리가 자연 속을 거닐며 여러 각도에서 보는 풍경을 제대로 담을 수 없다. 따라서 사진을 찍어서 보는 것이 실제로 보는 것과 감흥이 다른 것은 이러한 사진기의 특성 때문이다. 답⑤

21.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여백의 미는, 있는 사물을 그대로 그려 넣지 않고 비워둠으로 해서 주제를 더욱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보는 이로 하여금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줌으로써 예술적 공감대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문학 작품에 적용하여 말하면 주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거나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독자의 상상력에 맡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시된 작품들 중 ②~⑤는 이러한 여백의 미가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는 반면, ①은 독자의 상상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유교 윤리의 교훈적인 면을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여백의 미와는 거리가 먼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답①

22.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동양화의 특징은 여백의 미를 강조하고 공간을 자유로이 처리하며, 구도를 재배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암 표현에 의한 입체감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①과 ⑤는 여백의 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②와 ④는 산점 투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상하고 있다. 답③

23. '성김'은 공간적으로 사이가 뜬 것의 의미이고 '빽빽함'은 사이가 비좁고 촘촘한 것을 가

리킨다. 따라서 이 두 단어의 관계는 반어 관계이다. 그러나 '넉넉하다-푼푼하다'는 두 단어 모두 '여유가 있고 넉넉하다.'의 뜻으로 유의 관계이다. 답③

<인문>

24. '현대인은 자신의 참모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물질이나 이념과 같은 외면적 가치에 더욱 매달리고 있다.'는 데서 ①을 확인할 수 있고, '인간의 목표가 각자의 개성과 존엄성을 통해 보편성에 이르는 데 있다고 보았다.'는 데서 ③을 확인할 수 있다. '괴테가 세상을 떠난 지 긴 세월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그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는 데서 ④를, '진정한 인간성을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현대 사회의 비인간화 현상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는 데서 ⑤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②는 '괴테는 집단 의식보다는 개인의 존엄성을 더 중시했다.'는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답②

25. 자신의 참모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물질이나 이념과 같은 외면적 가치에 매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정한 인간성'을 추구하는 괴테의 사상을 핵심 개념으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답④

26. 괴테가 말하는 진정한 인간성은 자연과 유사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부여된 고귀함을 잊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휩쓸려 가는 현대인들의 생활이란 자연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에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미소짓게 되는 것이다. 답③

27. (가)의 논지는 개인이 집단에 종속되어 자립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집단이나 조직이 개인의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되고 개인의 생각이나 사고가 집단이나 조직의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지에 가장 가까운 것이 ⑤이다. ①은 개인과 집단을 동일하게 보고 있고, ②③④는 개인보다 집단을 우위에 두고 있는 견해들이다. 답⑤

28. 현대 사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 따라서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져 가는 오늘날의 심각한 병폐를 함께 치유하자는 것은 전 인류의 본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전 인류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답②

<수필/희곡>

29. 비자반 특급품은 나무에 균열이 생겼다가 제 상처를 고쳐서 본디대로 유착된 것이다. 이러한 유착, 결합이 가능한 것은 재질이 유연하기 때문이며, 이것으로 유연성을 실제로 증명해 보이기에 특급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답⑤

30. 글쓴이는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특급품이 되는 비자의 속성을 인생의 과실과 연결시키면서 과실은 예찬하거나 장려할 것이 못되지만 인간은 누구나 과실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답③

31. (가)는 치명적인 시련을 이겨내면 도리어 한 급이 올라가 특급품이 된다는 내용으로, 고진감래(苦盡甘來), 개과천선(改過遷善), 전화위복(轉禍爲福), 청출어람(靑出於藍)과 의미가 통한다. 그러나 조변석개(朝變夕改)는 '계획이나 결정 따위를 자주 뜯어고치는 것'으로, (가)글의 내용과는 관련성이 적다. 답①

32. 글쓴이는 '일등품'이 '특급품'이 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이것을 인생에 결부시켜 인간은 누구나 과실을 범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과실을 범하지 않는다고 큰소리를 쳐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일상의 사물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자세를 글쓴이로부터 배울 수 있다. 답④

33. '특급품'을 인생에 결부시킨 글쓴이의 관점은 '참다운 인생이란 실패나 실수를 극복하고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하는 것'이다. ⑤의 장발장은 과실을 범한 뒤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여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삶으로써 '특급품'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답⑤

<언어>

34. 이 글은 국어의 역사적 변화는 음운, 어휘, 문법, 의미 등 국어를 구성하는 모든 측면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 국어의 역사적 변화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답①

35. (가)의 중심 내용은 '언어는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①~④는 인위적인 변화의 예가 되며, 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집'의 의미가 변한 것으로,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중심 내용에 적절한 예가 된다. 답⑤

36. (다)의 내용은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漢字)로는 그 의미가 통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자신의 의사를 글자로 적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쓰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①, ②,④,⑤는 이 글에서 언급한 내용이나 ③은 이 글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답③

37. ㉠의 '마음'은 '의사, 지향'의 의미로, ②와 같다. ①은 '마음씨', ③~⑤는 '감정', '심정'의 의미이다. 답②

38. ㉡은 음운 변화에 의하여 오늘날에 그 모습이 바뀐 단어들이다. '나라'와 '이런'은 오늘날에도 그 모습이 달라지지 않은 단어들이며, '시러'는 '능히'라는 뜻의 옛말로 지금은 사라진 단어이다. '날로'는 오늘날 '날마다'로 쓰는데, 이는 음운 변화에 따라 모습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조사가 달라진 데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 것이다. 그러나 '펴디'는 오늘날에는 '펴지'로 쓰며, 이는 구개음화 현상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 음운 변화의 예에 속한다. 답④

39. 문장의 연결 관계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어진 것을 찾는다. ①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한자(漢字)로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가 '원인→결과'로 이어진 관계이다. ②는 의도 관계, ③은 수식 관계이다. 답①

<현대소설>

40. 이 글에서의 '열쇠'는 '재산'과 '가업 계승'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따라서 덕기에게는 학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족쇄와도 같다. 그리고 집안의 재산을 물려받아 가장으로서 집안을 유지·발전시켜야 하는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다. ③은 책임과 함께 경제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답③

41. 조부는 덕기에게 열쇠를 맡기기 위하여, 자신의 병세가 위중하며, 집안 사정이 복잡하여 덕기만을 믿을 수 있으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글 중에는 덕기의 욕심은 나타나지 않는다. 마지막 장면에서 덕기가 열쇠를 얼른 집어넣는 것은 수원댁 때문이지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다. 답①

42. 이 글을 통해 볼 때, 수원집은 열쇠를 얻기 위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계략을 꾸며 온 인물이다. 그러나 덕기가 빨리 도착하여 덕기에게 열쇠가 돌아가 버림으로써 그 계략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이런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속담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답③

43. 조부는 손자인 덕기의 뜻을 존중하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결코 우유부단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돈에 대해 결벽증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보이고

있다. 조부는 사당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덕기를 공부시켰고, 이제는 덕기가 자신 대신 그 일을 맡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학업 포기를 종용하고 있다. 덕기 아버지에 대한 태도 또한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재산과 사당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조부는 가문을 중시하는 가부장적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답①

44. 이 글은 조부가 상속권을 아들이나 수원집에게 주지 않고 손자인 덕기에게 물려준다는 것과, 이에 따른 갈등이 중심 내용이다. ①,③,④,⑤는 이와 관련되는 내용이나 ②는 이러한 사건이나 갈등 양상을 이해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답②

<고전산문>

45. 춘향이가 '땅을 한 길 넘게 파 놓고, 세 끼 밥을 해 먹을 수 있을 만큼 잔디를 쥐어뜯어 놓았다'는 것은 춘향의 처지를 과장되게 표현해 놓은 것으로 방자의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답②

46. <보기>의 핵심은 '영원한 사랑'이다. 그러나 ③은 반지와 거울을 주고받는 행위를 '관습에 따른 선물'로 이해했으므로 <보기>의 견해와는 다른 것이다. 답③

47. ㉠에 들어갈 사설은 춘향이가 헤어지기 싫어서 한 손으로는 말고삐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이 도령의 다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말로, 한양으로 가기는 가야 하는데, 님이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은 이별과 거리가 멀고, ③은 방자의 입장, ④⑤는 춘향의 입장과 심리가 반영된 말이다. 답②

48. 이 도령은 춘향과의 이별이 비통하고 괴롭다. 따라서 길을 재촉할 리도 없고 경쾌할 수도 없다. 단지 잦은몰이 장단은 말이 달려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도령의 심정과 관련되는 경쾌함과는 거리가 멀다. 답③

49. (나)에는 이 도령과 춘향이의 이별 장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방자와 향단이가 이별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연극으로 공연할 때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방자와 향단이가 이별하는 장면을 삽입하고 있다. 답②

50. '애'는 창자를 뜻하는 옛말이다. 따라서 ②~⑤는 '창자가 끊어질 듯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의미로 '간장이 녹다.'와 의미가 통하나, ①의 '애꿎다'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어떤 일을 당하여 억울하다.'는 뜻으로 '간장이 녹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답①

<고전시가>

51. '져근덧 밤이 드러'로 보아 배경이 낮에서 밤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고, 꿈을 꾸면서 지상에서 천상으로 무대가 옮겨졌다가 다시 잠을 깨면서 현실로 돌아온다. 또한 작자는 여정에 따라 '듁서루'에서 '망향정'으로 장소를 옮기고 있다. 그러나 '오월 댱텬'으로 보아 여름인 것은 알 수 있으나 가을로 옮겨갔음은 확인할 수 없다. 답⑤

52. 관찰사로서의 모습과 인간 본연의 모습 사이에서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즉, 공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수려한 자연 경관에 대한 회포가 드러난다. 답③

53. ㉡은 수평선을 묘사한 부분으로, 작가의 시선이 수평선에 머물러 있지만 사고 과정은 '바다→하늘→미지의 세계'로 진행되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고 있다. ① 또한 '언덕 너머에 대한 동경'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과 발상이 유사하다. 답①

54. '계명성 돗도록 곳초 앉아 ᄇᆞ라보니'로 볼 때 ②의 '발길을 돌려 내려 왔다'는 것은 이 글의 작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다. 답②

55. 달맞이 중에 잠이 들면서 꿈에 'ᄒᆞᆫ 사ᄅᆞᆷ'과 술을 마시고 깨어난 뒤 바다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회를 적은 것이다. 바다를 굽어보니 '바다의 깊이와 끝을 알 수 없다'는 ②가 적절하다. ①은 폭포수, ③은 산봉우리, ④는 누각을 묘사한 것이고, ⑤는 높은 곳에서의 조망을 나타낸 것이다. 답②

<사회>

56.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개방적인 민족주의적 시각을 지녀야 한다.'는 것은 기존의 국가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국가의 고유한 생활 양식이 고착된다.'는 ⑤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답⑤

57. 이 글의 요지는 '세계화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에서 개방적 시각으로 세계화 현상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적극적이면서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이다. 따라서 이 글은 세계화를 피할 수 없는 추세로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답②

58. 이 글은 세계화 현상을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고찰하고 있다. 답④

59. 이 글의 필자는 '개방적 민족주의의 시각에서 세계화 현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논의를 다양화함으로써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답⑤

60. 글쓴이는 선진국의 문화에 대해 사대주의나 무조건적인 배타주의의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육성해 가자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①은 '선진 문화에의 종속'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이 글의 필자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답①

<과학>

61. ㉠~㉣은 땅, 즉 자연 세계를 의미하고 있으나, ㉤은 자연 세계를 떠난 추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답⑤

62.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 있듯이 '수학은 자연에 발을 딛고 있을 때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논지이다. 이러한 논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④이다. 답④

63. 이 글은 신화를 서두에 제시함으로써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여 글의 논지를 쉽고 부드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문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화를 서두에 제시한 것은 아니다. 답②

64. 글의 마지막 문단에 '옛 수학 과 새로운 것을 비교하면, 옛 것은 고정되고 유한한 대상을 고려하며 정적인 반면에, 새 것은 변화하고 무한한 대상을 연구하며 역동적이다.'는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답①

65. '운동'의 사전적 의미는 (1)물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위치를 바꾸는 일. (2)몸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몸을 움직이는 일. (3)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일 등이다. ㉥의 의미가 자연과학에서의 '운동'이므로 (1)의 의미와 같다. 답①